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유럽 경제도 델타 변이 확산에 먹구름
 - ◇ (초점)-'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달 인상했을 뻔'..강경 금통위에 패닉 빠진 이자율시장
 - ◇ (시장진단)-한은의 교통정리에 달러/원 금선회, 판도 바뀔까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폴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한 대니시 시디퀴 로이터 사진기자가 아프가니스탄 내 무력 충돌을 취재하던 중 피살됐다. 사진은 고인이 2018년 찍은 북한 여성 병사의 모습이다. (로이터/대니시 시디퀴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16일 증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39.5	0.8%	-4.7%	+6.5%	유로	1.1805	-0.6%	-3.4%	+8.9%
100엔 대비	1,037.2	0.1%	1.4%	+1.1%	엔	110.08	0.1%	-6.2%	+5.2%
유로 대비	1,347.6	0.8%	-1.6%	-2.3%	위안	6.4615	0.5%	1.0%	+6.7%
위안 대비	176.16	0.2%	-5.6%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687.85	-0.5%	13.3%	+7.2%
코스피	3,276.91	1.8%	14.0%	+30.8%	나스닥	14,427.24	-1.9%	11.9%	+43.6%
코스닥	1,051.98	2.2%	8.6%	+44.6%	S&P500	4,327.16	-1.0%	15.2%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85.13	1.6%	3.5%	+19.8%
국고채 3Y	1.451%	7.6bp	47.5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718%	3.4bp	38.3bp	-14.5bp	미국채 2Y	0.228%	1.3bp	10.7bp	-144.0bp
국고채 10Y	2.008%	-2.5bp	29.5bp	+3.0bp	미국채 10Y	1.300%	-6.1bp	38.8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71.81	-3.7%	48.0%	-20.5%	한국 5Y	18.5bp	0.3bp	-3.5bp	+0.1bp
금(현물)	1,810.89	0.2%	-4.6%	+25.0%	일본 5Y	17.0bp	0.3bp	2.0bp	-4.5bp
TR상품지수	2,915.94	3.4%	8.8%	+7.8%	중국 5Y	37.0bp	-1.1bp	9.0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7월 19일(월)>

- 한은,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BOK 이슈노트)(12:00)
-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15:00)

<20일(화)>

- 금감원, 2021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
- 금융위, 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10:00)
- 한은,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BOK 이슈노트)(12:00)

<21일(수)>

- 관세청, 7월 1-20일 수출입 동향
- 한은, 6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금감원, 2020년 PEF(Private Equity Fund) 동향 및 시사점(12:00)
- 한은, 「코로나 19의 상흔: 노동시장의 3가지 이슈」 (BOK 이슈노트)(12:00)

<22일(목)>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1차 관브리핑(13:30)
- 한은,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12:00)
-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23일(금)>

- 특이 일정 없음

해외 주요 주간 일정

<7월 19일(월)>

-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20일(화)>

- 일본 6월 CPI (08:30)
- 중국 7월 대출우대금리 (10:30)
- 유로존 5월 경상수지 (17:00)
- 미국 6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1:30)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7월 서비스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표 (21:30)
- 싱가포르 휴장

<21일(수)>

- 일본은행(BOJ), 7월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8:50)
- 일본 6월 수출입 (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22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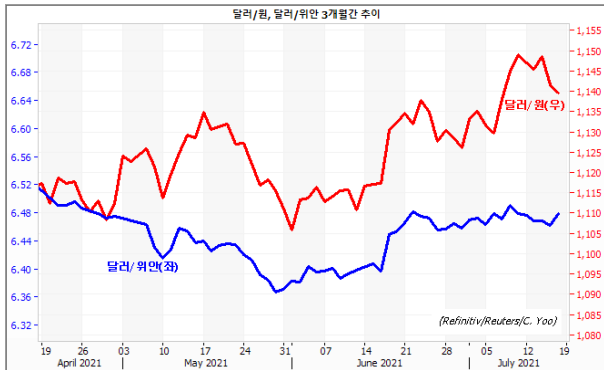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회 회의, 금리 발표 (20:45), 기자회견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6월 전미활동지수 (21:30)
- 미국 6월 기존주택판매 (23:00)
- 유로존 7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3:00)
- 미국 7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자정)
- 일본 휴장

<23일(금)>

- 유로존 7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7:00)
- 미국 7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2:45)
- 일본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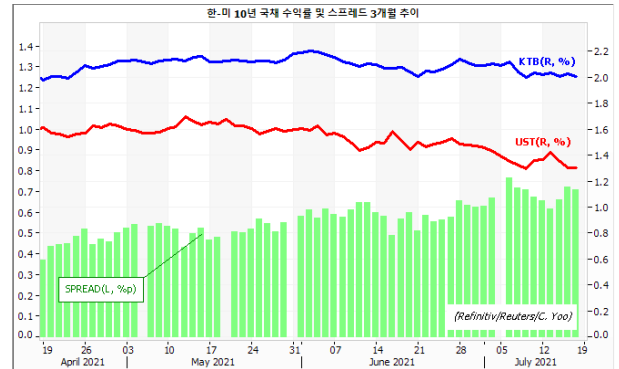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코로나 확산 추세와 글로벌 달러 동향을 살피며 박스권에 머물며 등락할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35-1150 원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단계로 격상한 지 한 주가 지난 만큼 코로나 확진자 정점론에 대한 기대가 커질지 주목된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코로나 확산에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터라 코로나 변수가 위력을 떨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21일 발표될 20일 기준 한국 수출입 잠정치로 통해 수출 호조세가 확인될 경우 국내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될 수 있겠다.
- 주목되는 해외 이벤트로는 22일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가 있다.
- ECB 총재가 이번 회의에서 정책 가이드를 예고한 만큼 경기 인식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CB는 지난 8일 인플레이션 목표를 종전 소폭 하회에서 대칭적 2%로 변경해 일시적인 물가 오버슈팅 용인도 시사한 바 있다.
-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 미국 경제 호조에 더해진 미국 통화정책의 조기 긴축 경계감 등에 최근 글로벌 달러는 단단하게 지지되는 모양새다.
- 환율 반락에 추격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 게 확인된 만큼 달러/원은 저점을 다지며 재반등하는 흐름을 그려갈 수 있다. 물론 환율의 상승 추세 전환으로의 유인은 크게 꺾였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7월 한국은행 통화정책 회의 여파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 주 초반 국고채 입찰, 2차 추가경정예산 이슈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지난주 후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에 1.50% 부근까지 급등한 뒤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면서 고점에서는 반락했다.
- 시장에서는 8월 인상 전망이 늘어나고 있고, 연내 2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전망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국내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아직 정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이른 모습이다.
- 재정 측면에서는 이번 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예산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2조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지난주 금통위 회의 여파가 어느 정도 소화된 이후에는 월말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회의로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이 옮겨갈 전망이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한다.
- 21일 관세청은 이달 20일 기준 한국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고, 한국은행은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또한, 19일 발표되는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 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한국은행 시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 기획재정부는 19일 국고채 5년물 선매출 1조원 및 본매출 1.5조원 경쟁입찰과 20일 7천억원 상당의 국고채 20년물 경쟁입찰을 진행한다.

(분석)-유럽 경제도 델타 변이 확산에 먹구름

파리, 7월 14일 (로이터) -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 19 감염을 상승으로 유럽에서 외출제한 조치를 다시 실시하는 국가가 늘면서 유로존의 경기 회복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스페인 일부 지역이 제한 조치를 재개한 가운데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영화관과 기차 등 공공장소에 백신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주의를 촉구했다. 영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 독감시즌보다는 지금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오는 19일 코로나 제한조치를 모두 해제할 예정이다.

유럽 정치인들은 현재로서는 지난 분기 강력한 경제활동 반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전면적인 봉쇄로의 회귀는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13일 2021년 경제 성장률이 기존 5% 목표보다 높은 약 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다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뤼노 르 메르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델타 변이가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코노미스트의 90% 가까이가 새로운 코로나 변이를 유로존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하면서도, 올해 4.5%의 견실한 성장을 예상했다. (Full Story)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의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고,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의 경우도 40%가 넘는다.

옥스포드는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영국과 이스라엘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입

원율과 사망률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옥스포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다시 개방되고 감염자 급증이 허용된다면, 코로나 관련 결근으로 기업들에 큰 차질이 초래되고 자발적 거리두기가 늘어나 경제적 이득은 환상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위험한 실험

포르투갈에서는 이런 우려와 같은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리스본의 식당 주인들은 그럴지 않아도 여름철 관광객이 사라져 고전하고 있는데 이제 실내에서 식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나 백신 접종 증명서까지 요구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주 나이트클럽과 축제, 식당 등에 제한 조치를 재실시하면서 델타 변이 여파를 그 이유로 꼽았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은 주점 영업시간을 줄였고, 인근 발렌시아에서는 통행금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유럽 최대국가인 독일이 어떤 정책적 결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관리들은 접종률이 더 높아질 때까지 기존의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율이 느슨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장관은 봉쇄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다시 봉쇄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최악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정부 관리들은 경제의 문을 다시 개방하려는 존슨 총리의 계획이 위험한 실험이라면서도 영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점)-'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달 인상했을 뻔'..강경 금통위에 패닉 빠진 이자율시장

서울, 7월 15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코로나 19가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다면 이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됐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다."

외국계 은행의 한 트레이딩 헤드가 15일 7월 금융 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들은 후 던진 말이다.

그만큼 이날 이 총재의 발언 수위가 강경했다는 의미다.

전날까지 이자율 시장에선 이 총재가 최근의 코로나 19 재확산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19와 경기의 상관도가 낮아졌지만, 일단 향후 확진자 수, 백신 접종 흐름 등을 지켜보겠다"라든지 "금융 불균형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정도의 코멘트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물론 이날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건 고승범 금통위원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통화정책 정상화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 총재가 분명히 드러낸 것이 채권시장 참가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날 이 총재는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다"며 "다음 회의부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에 대해서도 이 총재와 시장의 기대 수준에 괴리가 드러났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이라는 게 한 두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경기 회복을 전제로 내년, 내후년에 금리를 올리면 경제주체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재의 발언 후 이자율스왑(IRS) 금리는 연내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해 이 총재 임기 중 세 차례 인상까지 반영폭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물론 이 총재가 남은 임기 중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인상할 것이라고 보는 시장 참가자는 거의 없다. 운용역들은 이 총재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자신들은 이를 프라이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단기 금리 급등으로 국내 기관

들이 또 한 번 손절 압박에 몰릴 수 있는 만큼 '저가 매수' 접근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B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내년 대통령선거 전 기준금리 두 번 인상은 확정된 것 같다"며 "이번에 충분히 쉬었다 갈 수 있었는데 한은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과도한 유동성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하고 싶어 할 수 있고 8월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번 인상 사이클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깊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

C 증권사 채권운용팀장은 "한은 총재 퇴임 전까지 기준금리를 두 번 올리는 걸 기본 시나리오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만약 8월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총재 임기 내 세 번까지 프라이싱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채권을 많이 들고 가야 하는 곳에서는 저가 매수한다고 들어갈 상황이 아닌 듯하다"며 "다들 일단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인상되는 시점까지 기다려보자고 할 듯하다"고 말했다.

D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는 상황에서 결국 칼은 금리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 총재는 일단 두 번 정도는 인상한다는 데 대해 확고하게 마음을 정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시장이 많이 밀렸지만 그 누구도 쉽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며 "여기서 증권사가 다시 스탱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걸 보고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의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오늘 한은 총재 이야기는 8월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1~2주 동안 2천명 이상 나오지 않는 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분명한 시그널로 보인다"며 "8월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11월에 하지 않으면 굳이 빨리 시작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확산이 이렇게 심한데 굳이 이런 시그널을 준 이유에 대해선 부동산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경제주체들에게 이제 기준금리 올릴 거니까 부동산 사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진단)-한은의 교통정리에 달러/원 금선화, 판도 바뀔까

서울, 7월 1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15일 속락하고 있다.

이번 주 들어 국내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00 명대로 폭증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는 등 코로나 4 차 대유행을 실감케 하지만, 이날 달러/원은 뒷걸음질 치느라 바쁘지만 하다.

전날까지만 해도 1150 원을 넘나들면서 추가 상승 여력을 저울질했던 환율이지만, 오후 2시 36분 현재 일간 고점 대비 약 8원 밀려 1140원 하향 이탈을 시도 중이다.

이처럼 이날 유독 원화 강세폭이 큰 데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상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제시된 영향이 크다.

▲ '흔들림 없는' 금통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 결과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매파 일색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한은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는 "코로나 19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밝혔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 확산에도 한국 경제 회복 기초 유지, 물가 상승률 전망 경로 상회, 차입에 의한 자산 증가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정책 지원 필요성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금리 인상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8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은 한국은행이 명확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오늘 금통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파적이었다"면서 "그렇다 보니 환율이 금통위 자료에 적극 반응했다"고 말했다.

▲ 시장 판도 바뀔까

최근 달러/원 환율이 9개월 최고치인 1150원까지 상승한 데는 국내 코로나 확산과 이에 따른 한은 금리 인상 의지 약화 가능성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가 국내 코로나 확산에도 국내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금리 정상화 의지를 강조한 만큼 달러/원 되돌림 시도는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다른 은행 외환 딜러는 "한은이 코로나 확산에도 한국 경제가 순항하고 금리는 정상화 수순을 밟겠다고 명확한 메시지를 낸 만큼 그간 역외발 환율 상승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원 고점이 확인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달러/원 상승압력이 잠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환율 저점이 크게 낮아질지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고, 변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히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에 따른 연준 조기 긴축 우려는 앞으로 더욱 크게 반영될 재료이기 때문이다.

위의 딜러는 "국내 재료는 일단 오늘 반영하겠지만 이후에는 글로벌 달러 움직임으로 시선이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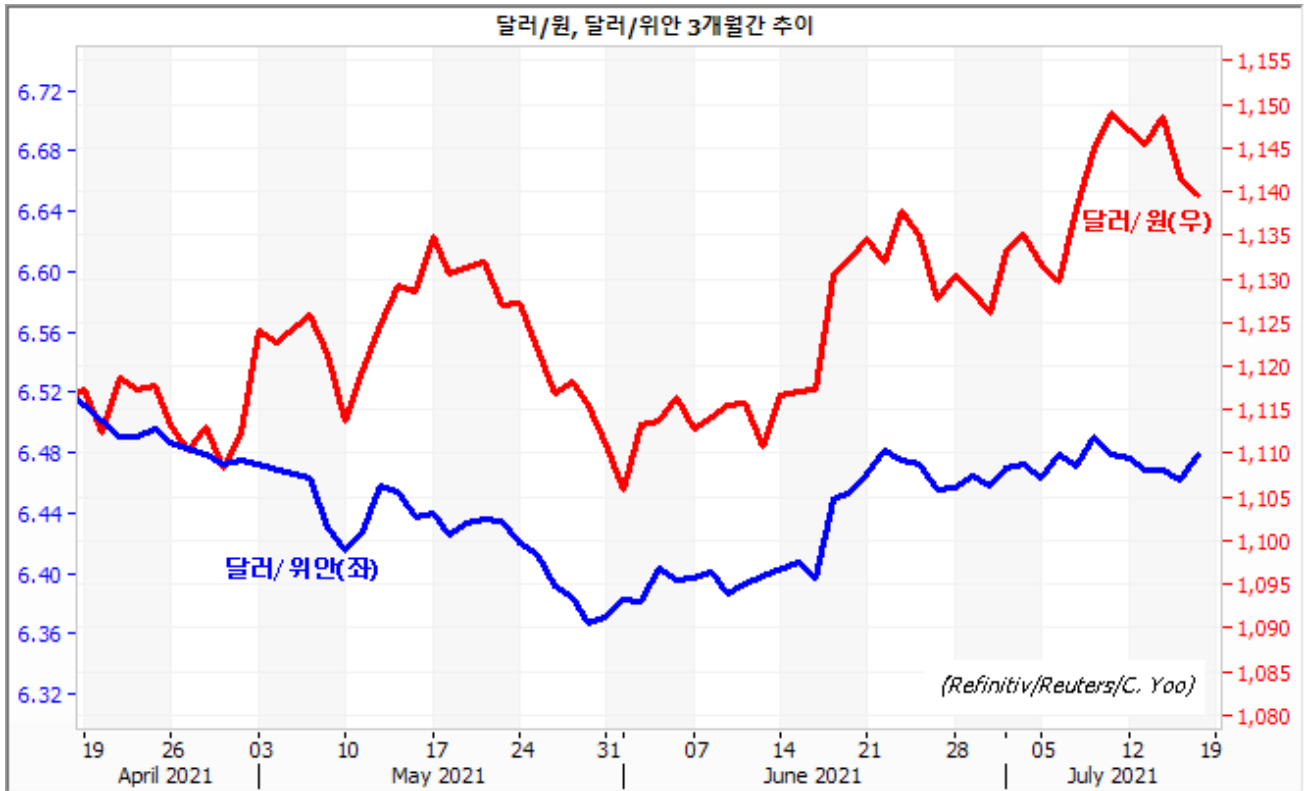
한편 문흥철 DB 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달러/원 환율은 한은 기준금리 영향을 일부 받겠지만, 보다 거시적으로 테이퍼링으로 인한 강달러 흐름 속에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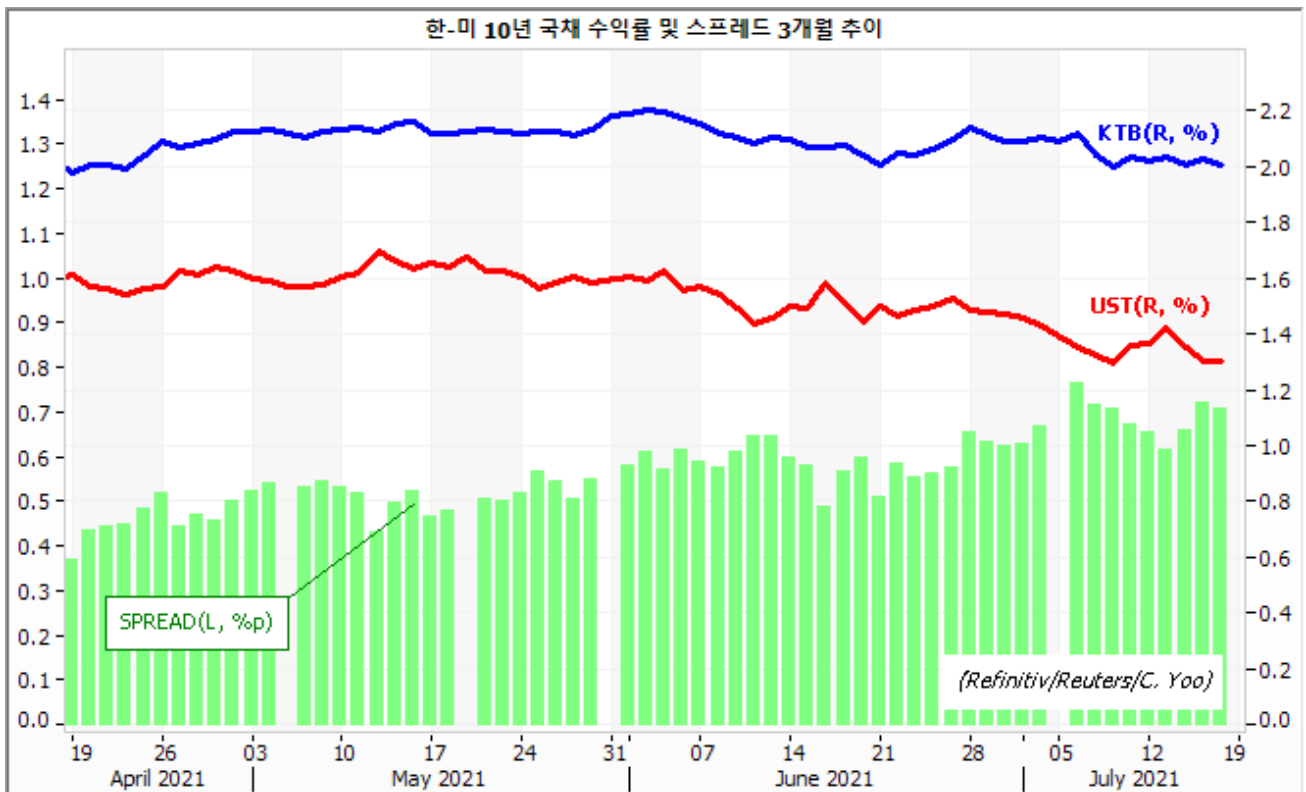
※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한 대니시 시디퀴 로이터통신 사진기자가
아파가니스탄 내 무력충돌 상황을 취재하던 중 피살됐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가 보도한 사진을 소개한다.

⇒ [Click Here](#)

[\(앞으로 돌아가기\)](#)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